

서산문화원 보(비매품)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쓰산의 움결

통권 제337호

2011 * 11



서산문화원



2011년 • 11월호



국 화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다. 된서리를 맞으며 홀로 피는 국화의 모습이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가진 군자의 모습을 닮았다하여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 부른다.

목 차

- 03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서산해역의 역사민속과 민중생활사 (주강현 / 해양문화연구원장)
- 08 서산의 문화인물-고수관
- 10 사극 속의 내시는 세 부류여야 한다 (김종성 / 역사학자)
- 13 인터뷰-김순일 선생 (유병인 / 서산문화원 이사)
- 16 서산의 전설-못이룬 사랑 용이 되어
- 19 국화
- 22 문화공간-공세리 성지·성당
- 24 두뇌훈련 (김경숙 / 자기주도학습코칭 강사)
- 26 서산의 템플스테이원플러스투어를 다녀오고... (정명혜/ 동작문화원 회원)
- 28 가을차
- 29 서산 덕지내 · 돌개미 두레놀이 경연
- 30 임동창 風流 - 오청취당의 꿈
- 32 문화원소식
- 33 시정소식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면서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지휘자를 보게 된다. 수십 명의 악사가 지휘자 한 사람의 몸짓에 의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자극하는 오케스트라가 된다.

지휘자! 바로 그가 「리더」다. 한 가정의 리더는 물론 가장이다. 가정의 기분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좌우된다.

우리 시민의 최고 지휘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시장이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훌륭한 음악을 만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연주자와 청중을 무시하고 질서와 규범을 벗어나 성찰할 줄 모르는 자만에서 망발이 속출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위험천만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그만 염려해야겠다.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이라는 슬로건하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는 지휘자를 만난 것 같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시민의 밑자락에 시장의 이름을 깔고 시민을 섬기고자 하는 지도자를 찾은 것 같다. 16만 시민의 표정이 밝아졌고 곳곳에서 희망이 싹트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통부재에서 만사형통의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패권주의 속에 속박당했던 부분은 훌훌 털어버리고 염려했던 편견과 아집은 이미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듯 하다.

우리는 지휘자의 눈빛에서 그의 가슴을 읽으며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감상하기를 기대해본다. 21세기는 문화 주류의 시대라고들 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소통 속에서는 평등해지는 법이다. 어느 조직이건 리더들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려 할 때 훌륭한 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있다.

이제 정당에 의해 편 가르는 식의 낡은 정치의 무모한 짓은 그만 해야 한다.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단원들을 상견하는 자리에서 첫마디가 소통을 얘기했다. 소통부재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한해 300조 원이라면 놀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소득의 27%나 된다. 이처럼 소통이 중요 시되는 시점에서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기다려졌던가.

당태종은 신하 위징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가? 위징이 죽을 각오로 진언하기를 한쪽만 들으면 우매해진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당나라를 평안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고사가 있다. 공직자들의 의견만 옳은 것 같지만 시민의 뜻이 더 훌륭할 때도 있음을 아는 현명함을 기대해본다.

瑞山海域의 역사민속과 민중생활사

주 강 현

(제주대석좌교수 · 해양문화연구원장)

차 례

Ⅱ. 서산의 해상교통

- 1) 운하
- 2) 포구와 뱃길
 - 도선장과 도선
 - 정기 연락선
 - 사례1.구도

“조선조 말기에 있던 일인데, 전라도 세곡을 선박으로 해상으로 운반하였다. 이때에 조선술과 항해술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전라도 연안에서 서울까지는 많은 날짜가 걸려야 했으며 또한 많은 포구를 경유하면서 정박하곤 했다. 이같이 여러 포구를 경유할 때는 이 세곡선의 감독관들은 의식적으로 수송 날자를 늦추어가면서 쌀을 팔아서 사복을 채우곤 하였기 때문에 이 세곡선이 안면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몇 섬이 남지 않았다는다. 이와 같이 안면도에 도착한 세곡선은 지금의 ‘쌀 썩은 여’라고 불리는 암초에 고의적으로 부딪혀 파선시켜놓고 조정에 사고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사고조사를 마치고 인명피해가 없음을 다행하여 문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이 있는 뒤로 이곳 주민들은 이 지역을 ‘쌀 썩은 여’라 불렀다는 것이다.”⁷³⁾

73) 『서산군지』, 1982, 714쪽.

2) 포구와 뱃길

서산·태안지역에 유명했던 포구는 성연면 면소재지인 평리 인근의 명천(창말)포, 그리고 지곡면 화천리의 원천포, 산성리, 정포와 대산면 삼길리의 삼길포 등이었다. 서산과 당진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명천포를 통하여 인천이나 서울로 운반되었으며, 덕적도나 자월도에서 생산되는 새우젓 등도 이곳에서 거래되었다. 그러나 주심포구는 역시 아산의 둔포였다. 서산과 해미의 여각은 각각 9개, 5개로 오산면 덕지천과 내오산, 울곶면 양대리, 인정면 모포, 화변면 대두, 마산면 강당리, 영풍창면 송치, 문현면 방길리, 성연면 평촌 등이었다. 해미 여각의 위치는 남면 귀밀리, 남면 석포리, 고북 하도면 남정리, 고북 하도 하정리, 염솔면 천의리 등이었다. 일제시대에 도선장이 서산에는 13개였는데 대산면과 안면도가 그중 많았다. 1920년대 중반에 기항포로 이름을 날린 곳은 팔봉면 호리의 구도포, 성연면 명천리의 명천포, 팔봉면 어송리의 창포 등이다.⁷⁴⁾

■ 도선장과 도선

서산의 도로사정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반면에 배편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활발하였다. 구도나 명천 등은 당시에 매우 변화한 포구였으며 배들이 무단없이 드나들었다. 특히 인천이라는 대도회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여서 인천사람 중에 태안반도 출신이 많은 것도 이같은 교통사정 덕분이다.

서산 팔봉의 구도까지 등외도로가 있어 호리까지 가서 선착장으로 연결되었다. 남쪽으로는 서산읍 내에서 부석의 창리까지 가서 안면도 우포리(황도를 뜻함)에 달하는 도선진이 존재했다. 기항포와 기항할 수 있는 배 종류는 서산면 덕지천리의 덕지천포(풍범선, 부정기), 인지면 모월리의 모기대포(조선 목선, 춘기 1회), 부석면 하사리의 하사리포(풍범선, 가을 1회), 부석면 대두리의 대두리포(풍범선, 가을 1회), 부석면 창리의 창리포(풍범선, 가을 1회), 팔봉면 호리의 구도포(발동기선, 기선(郵船)), 팔봉면 양길리의 방길포(조선 목선, 부정기), 팔봉면 어송리의 창포(발동기선, 조선목선, 부정기), 지곡면 화천리의 원천포(조선목선), 지곡면 산성리의 죽포(조선목선), 성연면 명천리 명천포(발동기선), 대포지면 사성리 사성포(풍범선), 대호지면 두산리 두산포(풍범선), 해미면 천의리 천의포(조선목선), 해미면 귀밀리 구도(풍범선) 등이었다. 덕지천포, 모기대포, 하사리포, 대두리포, 창리포, 구도포, 방길포, 창포, 원천포, 죽포, 명천포, 사성포, 두산포, 천의포, 구도 등 15개 이외의 포구가 확인된다. 출입

74) 『서산군지』2권, 1998, 194쪽.

가능한 배들은 대개 조선목선, 풍범선, 발동기선으로 삼분된다. 이들 세 종류의 배들이 혼용되던 단계를 말해준다.

이들 포구는 대개 콩 같은 곡식류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사성포같이 소나무가지, 즉 연료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태안 근흥의 정죽리의 안흥항이 이미 그 당시에 ‘포’가 아니라 ‘항’으로 명기되고 있으며 기선과 상선, 어선으로 구분되어 어류 등을 운송하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즉, 서산의 포구들은 전통시대의 포구를 계승한 소박한 수준으로 보이며 부정기선이 많은 것으로 보아, 나아가서 가을에 띄운 다는 통계수치로 미루어보아 수확기의 농산물운반용으로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道等	經營者	許可年月日	船夫數	渡船 區間
等外	安正逸	대정14.1.	2인	大湖芝面 沙城里 - 大山面 雲山里
等外	朴聖岩	14.4.	2인	大山面 花谷里 三吉浦 - 唐津郡 石門面 蘭芝島
等外	金應律	14.4.	2인	浮石面 倉里 - 安眠面 倉基里
等外	大山面	15	2인	大山面 雲山里 - 大湖芝面 沙城里
等外	安眠面	14.7	2인	安眠面 倉基里(牛浦渡) - 浮石面 倉里
等外	八峯面	14.8.	2인	八峯面 虎里(舊島) - 梨北面 蒲地里

■ 정기 연락선

인천기선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기선이 인천과 구도를 오갔다. 인천에서 3일에 출발한 배가 구도에 서 4일, 8일배는 9일, 12일배는 13일, 17일배는 18일, 22일 배는 23일, 27일 배는 18일에 각각 인천과 구도를 오갔다. 즉 인천에서 출발하여 구도에 도착하면 다음날에 다시 되돌아가는 방식이었으며, 출항 간격은 대략 5일간격이었으니 매월 6회 출항하였다.

인천과 성연 간에도 배편이 있었으니, 인천에서 2일출발한 배는 성연에서 3일, 7일배는 8일, 12일 배는 13일, 17일배는 18일, 22일배는 23일, 27일배는 28일에 각각 인천과 성연을 오고갔다. 인천-구도 배편처럼 인천에서 출발하여 성연에 도착하면 다음날에 다시 되돌아가는 방식이었으며, 출항간격도 5일로 같았다. 이들 시간표는 아무래도 조석간만의 물때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사례1.구도

구도포는 옛 구도성(舊島城) 근역에 위치한다. 구도성은 서해에서 가로림만으로 들어오는 해로를 감시할 목적으로 축조된 듯하다. 동벽은 표고 20m정도의 구릉에 걸쳐서 축조되었고, 서벽은 바닷가

에서 불과 30m정도의 거리를 두고 축조되어 있다. 성의 약 2/3는 평지에 축조되어 있는데 왕래할 정도의 도로를 개착한 부분이 아마 원래의 문지(門址)였던 듯하다. 성 길이는 약 600m에 달한다.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세기의 중엽인 효종조에 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종(1660~1674)대에 이흥덕이 첨절제사로 와서 이곳에 진을 친 것을 마지막으로 이 성이 폐성되었기 때문이다. 성곽의 축조목적은 경상·전라·충청도의 이른바 삼남지방의 세곡 운반·저장을 감시하기 위해 쌓은 성이었는데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구도에서의 현지 증언을 채록하였다.⁷⁵⁾

“왜정때는 한 45가구가 살았나요. 지금은 53호지요. 마루보시라고 일본말인데 왜놈들 연락선 회사예요. 인천을 땡겼지요.'이레다시'라고 당일치기도 있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있어요. 이들이 한 번은 다니지요. 바람, 주의보 내리면 당연히 출항이 안되지요. 여기서 9시에 출발하여 4시반이면 도착해요. 인천에서도 9시에 출발해서 4시간 30분이면 도착해요. 바람이 일면 5시간도 걸려요. 기계벤데 굉장히 커서 몇 백명씩 타고 다녔지요. 180톤인가. 구도에서 고파도, 풍도, 여흥(영흥), 선재도, 월미도 앞을 통과해서 하인천 부두에 닿았지요. 주로 장사꾼, 쌀장사, 마늘장사들이 짐을 싣고 인천상회로 실어 나랐지요. 인천에서 여기로 오는 이들도 많았지요. 부모자식이 헤어져 사니까. 옛날에는 인천으로 공부다니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때야 도시로 가서 공부했지요. 학구열, 그게 높았거든요.

해방되고서 개인배가 다녔지요. 인천에 있던 개인회사인데. 해방 전에는 해룡환이 다녔는데 풍도 앞에서 파손되서 200명이 죽었지요. 마루보시배가 해룡환이지요. 해방되고서 종호환이 다녔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당시에 구도에는 주재소가 1군데 있었죠. 해산물 말고도 이북에서 감자 같은 것, 이북 원산에서도 오고 평안도에서도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보관하곤 했지요. 일본애들이 마루보시회사 애들이란 농산물 들여오는 애들이랑 한통이지요. 여기서는 쌀, 잡곡 실어내가고, 인천에서 철물, 연장 같은 것을 공장에서 실어오고 서태안에 가져다팔고.

예전부터 구도라 불렀어요. 호리는 저 안쪽으로 들어간 동네를 말하구요. 구도 부두는 왜놈들이 만든 거예요. 방파제를 쌓은 거예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지요. 연락선이 끊긴지는 육십댓살 때 벌써 끊기구요. 서산가는 찾길은 왜정때도 있었는데 차도 없이 서산까지 걸어서 2시간, 40리길이지요. 태안보다는 주로 서산을 많이 다녔지요. 길이 좋으니까. 장을 볼때는 서산장을 보고, 태안장은 출발같이 지요. 왜놈들 짐차가, 목탄차가 다녔지요. 서산장이 1.6일, 태안장이 2.7일, 그리구 해미장, 운산장이 있었지요. 옛날이 오히려 경기가 좋았지요. 인천, 서울사람들이 다 여기를 거쳐 갔으므로 여기가 중요한 관문이었지요.

75) 박호삼(남, 74세, 농업, 구도 거주), 2005년 3월 12일 조사. 구도가 고향으로 평생을 구도포구에서 살면서 농사짓고 있다. 제보자의 집안은 지금은 간척되었으나 얼마 전까지만해도, 즉 15~76년전만해도 자잘한 원막이로 만들어진 곳이다. 구도 일대는 계속 소소한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판소리 4명창, 고수관



고수관(高壽寬, 생몰 미상)은 조선 순조·철종 때의 판소리 명창이다.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에서 태어났다고 전하며, 현재 생가지가 복원되어 있다. 이후 말년에는 공주에서 살면서 판소리를 지도했다고 전해지며, 소위 후기 4명창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세한 행적은 전해지는 바가 적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판소리계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후원자였던 신재효(申在孝, 1812~1884)도 자신이 지은 「광대가(廣大歌)」에서 “高同知 壽寬이난 同我婦子 塔彼南畝 殷勤問答하는 거동 勤課農桑 白樂天이라.” 하여, 그의 구수하고 은근한 창법을 백낙천에 비기고 있다. 또한 고수관은 유식하고 글재주가 있어서 소리판에서 즉흥적인 한시를 잘 지었다고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 경상감영에 초청을 받아 <춘향가>의 기생을 점고하는 대목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참석한 기생 이름마다 즉흥시 한 수씩을 붙여 불러서 참석자들이 감탄했다고 한다.

고수관을 비롯한 당시 명창들에 대한 기록은 곳곳에 전한다. 고수관은 목소리가 아름답고 판목창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판청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더듬¹⁾인 「춘향가」 중의 ‘자진

1) 판소리 명창들에 의하여 노랫말과소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져 이루어진 대목. 일명 제(制)라고 한다.

사랑가'는 염계달의 소리제를 받아서 짠 추천목으로 구수하기 이를 데가 없다. 소위 '고수관제'란 바로 춘향가 중의 '자진 사랑가'를 말한다.

고수관은 만년에 화류병에 걸려서 코먹은 소리[鼻音]로 자진 사랑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후배들은 이 비음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노래는 송만갑(宋萬甲)과 전도성(全道成)등이 따라 불려서 오늘날까지 전해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소리꾼들은 연극 무대를 위하여 개작한 '창극조 사랑가'를 부르고 있다.

현재 고수관의 일생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전해지는 일화 외에는 구체적인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고수관이 공주에 살고 있을 당시, 서울에서 음악인들이 조직했던 원각사(圓覺社)와 유사한 단체가 결성되었고, 고수관이 이 단체를 통하여 활동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출처: 서산의 문화유적



사극 속의 내시는 세 부류여야 한다



MBC 드라마 <계백>
왼쪽에서 2번째가 의자왕(조재현 분),
3번째가 계백(이서진 분).

중국에서는 늦어도 은나라 때부터 내시(내관·환관) 제도가 발달했다. 이미 고조선 때부터 중국에서는 고자를 환관으로 활용한 것이다. 중국에서 환관 제도가 발달한 것은 궁형(宮刑)이란 형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궁형이란 남성성(性)을 거세하는 것이다. 이런 형벌을 받은 죄수들이 궁에 들어가 환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궁형이라 불렸다. 일찍부터 환관 제도가 발달했기에, 고조선 말기에 해당하는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에서는 수조(豎刁)같은 환관이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도 환관이 되지는 않았지만 궁형을 받은 인물이다. 그가 역사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는 달랐다. 한국에서는 궁형 같은 야만적 형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대 한국에서는 ‘내시=고자’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다. 내시(內侍)는 말 그대로 쥔내에서 임금을 시종드는 사람 일 뿐이었다. 일반 남성들이 임금을 보좌했던 것이다. 적어도 고대 한국에서는 그랬다. 『삼국사기』 「직관」 편에 내관(內官)이란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궁에 설치된 부서 혹은 백제 내신좌평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했다. 적어도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가 활약하던 시대에 한국의 궁궐에는 고자 출신의 내시, 즉 고자형(型) 내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사의 제1기 내시들은 비(非)고자형 내시였다.

한국 사료에서 제2기 내시, 즉 고자형 내시가 출현하는 것은 발해·신라로 구성된 남북국 시대부터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 본기」 흥덕왕 편에서는 흥덕왕(재위 826~836년)이 왕후인 장화부인을 잃은 뒤에 재혼을 거부하고 여자를 멀리했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오로지 환수(宦豎)들 뿐이었다고 말했다. 환수란 고자형 내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전 시기의 사료에서는 고자형 내시가 등장하지 않고 서기 9세기 때의 신라 사료에서부터 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을 이해하려면, 9세기 이전에 신라 문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9세기 이전에



조선시대 내시를 다룬 SBS 드라마 〈왕과 나〉

신라 문화에서 발생한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나라 문화와의 융합, 즉 중국화(中國化)였다. 7세기 중반의 나당연합이 그 계기가 되었다. 당나라와 연합한 이후로 신라 사회는 중국식으로 급속히 개조되었다. 관리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복까지 중국식으로 바뀌었을 정도다. 신라에서 황제나 폐하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사라진 것도 이때부터다. 중국 황제를 받들다 보니 신라 스스로 황제나 폐하 같은 경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나당연합 이후의 중국화 분위기 속에서 중국식 내시제도가 신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도입된 고자형 내시들이 서서히 성장하다가 흥덕왕 때에 이르러 비로소 역사에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자형 내시에도 두 부류가 있었다. 자연적으로 거세된 사람들과 인위적으로 거세한 사람들이 있었다. 흥덕왕 편에 나오는 내시들은 자연적으로 거세한 사람들이었다. 이때까지도 한국에서는 남성성을 인위적으로 거세하는 풍습이 없었다. 이런 흐름이 고려시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고려 중반까지의 내시들은 자연적으로 거세된 사람들이었다. 『고려사』 「환관 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고려의 엄인(閹人, 환관)들은 본래 일반 서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천한 노비들이었다. 고려에서는 궁형을 행하지 않았기에,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

“개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고려 내시들이 고자가 된 대표적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외의 자연적 원인에 의해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거세된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에 내시를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도 적었을 것이다. 내시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조직력도 약했을 것이다. 고려시대 중반까지 한국사에서 강력한 내시들이 출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사의 제3기 내시들은 인위적으로 거세한 사람들이었다. 굳이 명명하자면, 인위적 고자형 내시라고 부를 수 있다. 몽골의 간섭(1270년)과 함께 그들이 역사에 등장했다. 몽골제국(원나라) 황실에 바쳐진 고려인 고자들이 출세하자 고려 하층민 사이에서 자발적인 거세가 유행한 것이다. 『고려사』 「환관 열전」에 당시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잔인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이것(몽골에서 출세한 고자들)을 부러워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거세하고 형은 동생을 거세했다. 또 강포한 사람들은 좀 분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거세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거세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궁형을 당한 사마천의 초상화(상상도)
출처 : 위키미디어 백과사전 중국어판

이 글에 따르면, 고려에서 거세 풍습이 생긴 것은 몽골 간섭 이후였다. 이때부터 고자들이 대거 양산되어 궁중 내시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고려 후기부터 고자들이 궁중 실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준다. 중국식 궁형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몽골 간섭 때부터 자발적 거세가 유행한 탓에 고자들의 대량 공급과 조직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덕분에 이들은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궁중 실무를 장악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친숙한 내시는 대개 다 제3기 내시다.

이처럼 한국사의 내시가 시기별로 3가지로 나뉜다면, TV 속의 내시도 당연히 그렇게 구분되어야 한다. 7세기까지를 다루는 사극에서는 고자형 내시가 등장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이후를 다루는 사극에서는 고자형 내시가 등장해야 하고, 몽골 간섭 이후를 다루는 사극에서는 인위적 고자형 내시가 등장해야 한다. 따라서 서기 7세기 중반을

다루는 MBC 드라마 <계백>에서는 제1기 내시 즉 비(非)고자형 내시가 등장해야 한다. 이성과 접촉할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는 남자들이 내시로 등장해야 한다. 그런데 제9회(8월 22일)와 제15회(9월 12일)에서 다뤄진 백제 내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제9회 때의 장면만 다시 살펴보자.

한 상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의자 왕자(조재현 분)를 방문했다. 병사들에게 판매할 강장제를 선보이기 위해서였다. 상인은 “아무리 지친 병사라도 이 약만 먹으면 별떡 일어설 수 있다”면서 “믿지 못하겠거든 아무 병사한테나 시험적으로 먹여보라”고 제안했다. 의자는 옆에 있는 내시에게 시식을 명령했다. 그러자 상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내관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의자가 “그럼, 네 눈에 장군으로 보이느냐?”고 되물자, 상인은 “이건 남자한테 좋은 건데”라고 중얼거렸다. 이 장면은 ‘내시=고자’라는 선입견에 입각한 것이다. 백제 때만 해도 고자형 내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 내시제도가 시대별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사극이 점차 풍성해지고 있다. 사극 촬영에 거금이 투입되고 톱스타들도 투입되고 있다. 이 같은 양적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질적 성장이다. 질적 성장이란 좀더 철저한 고증을 거쳐 각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사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각각의 시대가 가진 문화적 특성을 세심하게 다루는 사극들이 TV를 점령해야만 시청자들은 보다 알차고 유익한 역사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소개

김 종 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전공 박사수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한국사 인물통찰’ 강의 중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연재 중

“뺨를 짖는 노력으로 시를 쓰고 점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단에서 김순일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서산을 대표하는 시인중의 한 사람으로, 서산사투리 등 서산의 토속적인 내용과 풍경, 서민의 애환을 맛깔나는 시어로 풀어내는 김 시인의 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얼마전 그는 집을 신축하면서 아담한 서재 겸 문학사랑방을 꾸몄다. 아호를 따서 우산재(愚山齋)로 이름지었다. 당진군 정미면에 우산리라는 지명이 있고 아는 선배가 그곳에 살았는데 장날 송아지를 팔고 가면서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을 모두 들리며 쉬엄쉬엄 가다보니 수중에 돈이 모두 없어졌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그 이야기 속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정감이 묻어나는 것 같아 아호를 ‘우산재’로 지었다는 것. 서산시 읍내동 김시인의 자택 우산재에서 그를 만났다. 깔끔하게 지어진 우산재에는 책향기가 났다. 빼곡하게 꽂혀 있는 책을 보며 퇴보하지 않으려면 늘 공부하고 변해야 한다는 김시인이 평소의 지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 것 같다.

작가로 등단하기 전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을텐데 책을 접하고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계기가 있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을 잘했고, ‘발바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달리기를 잘했죠. 계주와 축구는 학교 대표선수였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피난와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형, 누나들이 가지고 온 책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소설책을 빌려다 무엇인지도 모른채 읽어봤어요. 이광수의 소설을 비롯하여 임궽정에 이르기까지 등잔불 밑에서 코구멍이 까매지도록 밤을 새워 읽었던것 같아요. 그후 성장하면서 문학의 ‘문’자 앞에도 가보지 않았던 내가 스무살 무렵 시를

좋아하게 되었을때 ‘아, 그때 무조건 읽어뒀던 소설책들이 나에게 문학의 씨를 뿌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단 등단은 언제, 어떤계기로....

시골에서 시를 공부하지 못한 나는 20여년간 혼자서 끙끙 앓다가 뒤늦게 한성기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한뒤 나이 40이 되어서야 등단하게 되었어요. 1979년 6월 ‘현대시학’에 1회 추천되었고 1980년 6월 ‘현대시학’에 2차 추천완료되어 늦둥이로 시단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그때는 심사도 까다로웠고 2~3차까지 추천되어야 했어요. 서울에 너댓 개의 문예지 뿐이었으니 실로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운 등단이었어요.

서산에서 처음 동인지를 만드는데 공헌한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1980년이었어요. 모 일간지 박스기사로 전국 시·군을 돌아가며 문학인 또는 문화인을 소개한 일이 있었는데, 서산 출신 텔런트와 아나운서만 소개하고 마는 것이었어요. 이때가 등단한 직후이기도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서산에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동인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서산문학’을 조직하였고 그 동인지는 지금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이 읽는 책이나 작품의 모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책을, 특히 시를 읽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읽습니다. 젊어서부터 노자, 장자를 좋아했고 불경을 많이 접했어요. 내 시의 뿌리는 노장이며 불교입니다.

요즘 시인, 수필가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만큼 글쓰기를 쉽게 생각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은 문예지의 과잉, 홍수시대입니다.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넘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에 따라 시인, 수필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시인, 수필가면 어떨습니까? 문제는 좋은 시, 수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일 것입니다. 작가로 등단한 사람은 그럴듯한 직함보다는 뼈와 살을 깎는 노력으로 시다운 시, 수필다운 수필을 쓰도록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이 있다면..?

나는 만해의 시를 좋아하고 한성기 선생님의 시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훌륭한 시인들이 많지만 현재 살아계신 분으로는 정진규 선생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시는 내 시의 큰 자양입니다.

서산사투리, 장터 이야기 등 투박하고 서산의 정서가 많은 작품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버지 직장에 따라 중1때 태안에서 서산으로 이사와 줄곧 서산에서 살았어요. 막걸리를 좋아

했고 장터에가면 톱가는 사람, 배추·무우 파는 사람, 모두 한데 어울리는 삶의 애환이 담긴 공간입니다. 서민의 애환이 담겨있어 좋아하게 되었고 제 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웃음이 없어진 것 같아 웃음을 찾아드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새로 출판되는 시집도 ‘웃음을 돈사려고’로 정했습니다.

요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서산여성문학회를 지도하여 창립한지 8년이 지났는데 4명을 등단시켰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여 인정받는 작가로 등단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을 공부하여 수준이 올라야 등단한다는 원칙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열 한권의 시선집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다작인 편으로 시집도 과분하고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미꾸라지 사원’ 이후 새 시집을 출판사에 넣고 있다.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웃음을 돈사려고’라는 열한 번 째 시집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와함께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시와 함께 살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서산의 숨결이 배어 있는 서산의 시를 쓰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시인은 아직도 부족하고 할 일이 많다고 한다. ‘우산재’도 개인 서재겸 후진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만들었다. “여성문학회 회원들을 매주 화요일 1회씩 지도하고 있고 하나 둘 등단시키고 있는데 새로 배우는 회원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글쓰기이기 때문에 제 재능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 후진양성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우산재’에 문학도들의 발길이 이어져 서산에 문학의 향기가 피어나는 고장이 되길 희망해본다.

김순일 시인은 1939년 서산 출생, 대전사범학교졸업, 1979년 현대시학에 ‘가을비’ 등이 추천돼 등단, 시집에 ‘섬’, ‘어둠꽃’, ‘서산장터’, ‘사람 어디 있나요-산성비’ 등과 시선집 ‘바보네 집 호박꽃’ 출간, 충남문학상, 한성기 문학상 수상, 서산중학교장 역임

〈글: 유병인〉

못 이룬 사랑 용이 되어

의상대사와 당나라 처녀의 애절한 사랑이 부석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때는 고려가 망할 무렵, 나라의 망함을 몹시 슬퍼하는 충신이 있었다.

“예라, 나라 없는 몸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섬길 임금도 없으니 내 어디에 뜻을 담고 살아가리!”

충신 류방택은 밤낮 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문득,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 글이나 읽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 결심했다. 그리하여 찾아온 곳이 지금의 부석면 취평리에 있는 도비산이었다.

“산천이 아름답고 공기가 좋으니 내 이곳에서 글이나 읽으리라!”

류방택은 도비산 중턱에 집을 짓고 밖에 출입도 삼가며 글을 읽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따르던 중들이 충신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그 집을 절로 만든 것이 오늘의 「부석사」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부석사가 세워지기까지 얹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져 오고 있다.

신라 제26대 임금 진평왕 9년, 즉 지금부터 약 천 4백년 전, 「복흥사」라는 절에 의상대사라는 승려가 있었다. 의상대사는 큰 뜻을 품고 당나라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자가 한 번 먹은 마음 어찌 굽힐 수 있으랴!”

의상대사는 기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무열왕 8년에야 당나라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때는 벌써 나이가 많았었다. 의상대사는 당나라 지상사라는 절의 지엄법사라는 늙은 스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나이 많아 시작한 공부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지 의상대사는 선생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다.

“의상대사는 참으로 천재와 다름없소!”

“너무 과한 칭찬이십니다.”

“아니야, 내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게 글을 가르쳤지만 그대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거니와 한 번 이르면 모두 깨우치는 두뇌도 별로 보지 못하였다네!”

선생이 말한 대로 의상대사의 이름은 당나라 안에 온통 퍼졌다.

“신라의 중이 천재라는군!”

“천리를 깨닫도록 영특하대!”

가는 곳마다 의상대사의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퍼졌다.

이때 지상사 아랫마을에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이 아가씨에게도 신라에서 왔다는 의상대사의 이야기가 들렸다.

“어떻게 생긴 분인데 칭찬이 자자하담!”

아가씨는 지상사에 올라가 의상대사를 멀리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늙은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과연, 용모도 선비 답고 얼굴에는 인자와 위엄이 있는 분이구나!”

아가씨는 날마다 멀리서 의상대사를 쳐다보다가 차츰 의상대사를 좋아하게 되었고 속으로 혼자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상대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문무왕 11년에 신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의상대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아가씨는 떠나기 전날 의상대사를 찾아와 사랑을 고백했다.

“대사님, 저는 평소 대사님을 마음속으로 흠모해 왔습니다. 저와 결혼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의상은 깜짝 놀랐다. 난생 처음 보는 여자에게서 결혼해 달라는 청을 받고 보니 말이 막혔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꾸짖는 말투로 타일렀다.

“아가씨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것 같소. 불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결혼이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하고 알아듣도록 말했다.

의상대사가 엄하게 말하자 아가씨는 더 말하지 않고 물러갔다. 그러나 다음날, 의상이 배를 타려고 하자 어제 그 아가씨가 서슴없이 배에 오르더니 의상을 따라 신라로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니 아가씨는 어느새 승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깎아 중이 되어 있었다.

“결혼은 못하더라도 스님 곁에서 나도 불도를 배우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상대사는 다시 점잖게 꾸짖으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그것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신라는 가까운 길도 아닌데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간단 말ियो.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하고 말했다.

아무리 말해도 의상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을 안 처녀는 죽을 것을 결심하고 깊은 바다로 풍덩 뛰어들고 말았다.

자기 때문에 귀한 생명 하나가 죽게 된 것을 생각한 의상대사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그런데 죽은 아가씨는 용이 되어 의상대사가 탄 배를 따라 신라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의상이 가는 곳마다 숨어 따라다니고 있었다.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당나라에서 배운 불도를 곳곳에 전하는가 하면 이곳저곳에 절을 지었다. 그러다가 문무와 16년에 왕의 명령을 받들고 지금의 경북 영주시 봉황산 중턱에 「부석사」를 세웠다.

의상대사는 어느 날, 자기 때문에 죽은 여인을 생각하고 그 여자의 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절터를 찾았다.

“당나라의 그 처녀를 위해 아담한 절을 창건하여 그의 넋을 위로하리라. 그런데 어디다 절을 지을까?”

의상은 이곳저곳 절터를 물색하다가 서산시 부석면 도비산 중턱에 「부석사」를 세우기로 했다.

“산수가 수려하고 앞에 바다가 탁 트였으니 그 아가씨가 좋아할 것 같구나!”

의상대사는 좋은 곳에 절을 짓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 때가 문무왕 17년이 되는 해였다. 그런데 그 곳 동네 사람들은 도비산에다 절을 짓는 것을 반대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이었다.

“도비산에 절을 짓지 말라!”

“절을 지으면 헐어버리겠다!”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도 의상은 절 짓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거의 다 지어가는 집을 쇠스랑을 들고 쫓아와서 부수어 버리려고 했다.

“절을 불살라라!”

“절을 부수어라!”

동네 사람들이 흥분하여 절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큰 바위가 공중에서 둥둥 떠오더니 바위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모두 듣거라, 너희들이 절 짓는 것을 계속 방해하면 이 바윗돌로 너희들 머리를 부수겠다. 지금 당장 물러들 가거라.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산이 흔들리도록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혼비백산 쫓겨 가면서도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저 바위는 당나라 아가씨가 용으로 변하더니 그 용이 다시 바위로 변하여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의상대사는 새삼 죽은 아가씨가 가없다고 생각했다.

바위는 훌쩍 날아가 절에서 바로 보이는 바다에 떠 있으면서 절 짓는 공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돌을 물 위에 떠 있다 해서 「부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절 이름도 「부석사(浮石寺)」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A·B방조제로 바닷물이 막혀 안타깝게도 그 돌의 모습이 땅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부석면이란 이름도 이래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은 부석과 홍성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둑이 생겨 부석의 운치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 돌을 보노라면 당나라 아가씨의 가룩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 오는 듯 하기도 하다.

※부석사 : 충남문화재자료 제195호, 677년(문무왕17)에 의상대사가 세우고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중수한 사찰

• 출처 : 서산의 전설(최주연 엮음, 1995)

국화 [菊花]



국화-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높이는 약 1m 정도이며 주로 가을에 꽃이 피서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오래 재배해 오는 동안 많은 변종이 개발되었으며, 노란색, 흰색, 빨간색, 보라색 등 품종에 따라 다양하다. 꽃의 지름에 따라 18cm 이상인 것을 대륜(大輪), 9cm 이상인 것을 중륜, 그 이하의 것을 소륜으로 구별한다. 또, 꽃잎의 형태에 따라 후물(厚物)·관물(管物) 및 광물(廣物)로 크게 나눈 다음 세분하기도 한다.

꽃을 말린 것을 베개 속에 넣으면 두통에 유효하고, 이불솜에 넣으면 그윽한 향기를 즐길 수 있다. 국화술(延命酒)을 빚어 먹기도 한다.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이며 중국이 원산이라고 하나, 그 조상은 현재 한국에서도 자생하는 감국이라는 설, 산국과 뇌향국화와 교잡설, 감국과 산국 절초와의 교잡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재배를 시작한 시기는 당대(唐代) 이전으로 추정된다.

국화는 매화·난초·대나무와 함께 일찍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지칭되어왔다. 못 꽃들이 다투어 피는 봄·여름에 피지 않고 날씨가



국화 매듭



국화문양의 금속장식

차가워진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 홀로 피는 국화의 모습에서 우리의 선인들은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화를 일컬어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도연명(陶淵明)이 국화를 가장 사랑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무숙(周茂叔)은 <애련설 愛蓮說>에서 “국화지는 일자야(菊花之隱逸者也)”라고 하였다.

국화는 군자 가운데서도 ‘은둔하는 선비’의 이미지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화가 언제 우리 나라에 전래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세종 때 강희안(姜希顔)이 지은 《양화소록 養花小錄》에는 고려 충숙왕 때 중국의 천자가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도대왕 필 국화도(보물 제744호)

중국에서는 음력 9월 9일, 곧 중양절에 국화주를 가지고 등고(登高)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9월 9일에 민간에서 국화주를 담가 먹는 풍습이 있었다.

고려가요 <동동 動動> 9월령에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서가만 하애라 아으동동다리” 라고 하였으니, 중양절에 국화주를 담가 먹었고 그것을 약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고려시대에 이미 우리 나라에도 국화가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청양 지방의 <각설이타령>에도 “9월이라 9일날에/국화주가 좋을시고”라는 구절이 있고, 경상북도 성주지방의 민요에도 “뒷동산 쳐다보니/국화꽃이 피었고나/아금자금 꺾어내여/술을 하여 돌아보니/친구하나 씩 나서네.”라는 구절이 있다.

국화는 한국의 고전문학, 특히 시조에서 도화(桃花)·매화와 함께 자주 제재로 등장하였는데, 그 중에서 송순(宋純)의 <자상특사황국옥당가 自上特賜黃菊玉堂歌>와 이정보(李鼎輔)의 작품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속담에는 ‘쥔신에 국화 그리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하거나 주가 되는 것이 천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당치 않을 때 이를 비유하는 것이다.

“풍상이 거친 날에 갓 피온 황국화를
금분(金盆)에 가득 다마 옥당에 보내 오니
도리(桃李)야 꽃이 오냥 마라 님의 뜻을 알패라.” 「송순」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 춘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였는다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정보」

❀ 고북면 가구리 국화축제

국화는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하고 많은 원예 품종이 있어서 가을이 되면 전국에서 국화축제가 풍성하다. 우리 지역에도 고북면 가구리 일대에서 11월 3일(목)부터 13일까지 “제14회 서산국화축제”가 열린다. 이곳 축제의 독특한 점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화와 함께 붉고 탐스럽게 열린 사과나무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사과밭과 국화밭이 한데 어울어진 모습은 한쌍의 연인처럼 잘 어울린다. 깊어가는 계절 가을 국화와 함께 여유있고 향기로운 여행을 떠나보길 권해본다.



• 참고문헌 : 「養花小錄」, 「樂學軌範」, 「韓國民謠集」(任東權, 集文堂, 1974), 「韓國名時調選」(李泰極, 정음사, 1982), 「大韓植物圖鑑」(李昌福, 鄉文社, 1982)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두산 백과사전

공세리 성지 · 성당

❖ 각지에서 찾아오는 아름다운 성당

공세리 성지 · 성당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성당이다.

1895년 6월 양촌성당(구합덕성당의 전신)에서 분리 창설되었으며 120년 역사의 유서 깊은 성당으로 2005년도에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일반 비신자들도 많이 찾아와 연간 2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 찾는 천주교 성지이며 관광명소이다.

성지 · 성당안에는 350년이 넘는 국가보호수 세그루가 있으며 그에 버금가는 오래된 거목들이 성당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계절마다 독특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공세리 성당의 매력은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태극기 휘날리며, 에덴의 동쪽, 미남이시네요, 영광의 제인 등 영화관과 TV 속에서도 공세리 성당을 만나볼 수 있다.

❖ 공세리 성당의 역사

공세리란 명칭은 충청도 일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곡을 저장하는 공세 창고가 있던 공세곶 창고지인 공세창(貢稅倉)이 있었던데서 유래한다. 성당이 위치한 1만여평의 부지는 예로부터 조선조 성종 9년(1478)년에 이곳에 세곡 해운창을 설치운영해오다가 중종 18년(1523) 80칸의 창고를 짓고 영조 38년(1762) 폐창될 때까지 근 300년 동안 운영되었던 공세 창고였다.

1895년 6월 드비즈(Devise) 신부가 공세리로 부임하면서 본당이 설립되었다. 초대주임으로 부임한 드비즈 신부는 이미 매입한 10칸 정도의 기와집을 개조하여 성당으로 꾸몄고, 1897년 6월에는 다시 3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공세창이 있던 일대를 매입한 다음, 1899년 그 자리에 성당과 사제관을 건립하였다. 또 1905년에는 조성학당(1927년 폐쇄)을 세워 교육 사업에도 앞장서 공세리 발전에 기여하였다.

1920년대 들어 신자수가 증가하자 기존의 성당으로는 늘어나는 신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드비즈 신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중국인 기술자들을 지휘 감독하여 1922년 9월에 현재의 고딕 양식의 서양식 성당과 사제관을 완공하였다. 이 후 9대 주임 이인하(李寅夏) 신부는 1958년 초에 강당을 신축하였고, 1971년 1월에는 13대 주임 김동욱(金東旭) 신부가 성당을 증축하고 별관을 완공하였다. 신고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근대사를 대표하는 의미있는 문화재이다.

한때 상처와 종기에 고약만한 약이 없었다. 그 고약이 맨 처음 만들어 보급된 곳이 바로 공세리 성당이다. 1895년 이곳에 처음 부임한 에밀 드비즈 신부가 프랑스에서 배우고 익힌 방법으로 원료를 구입해 고약을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주게 된다. 그 비법을 당시 신부님을 도와드렸던 이명래(요한)에게 전수하여 이명래 고약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이다.

❖ 순교자를 모시고 있는 순교성지

아산만과 삼교천은 교회박해 시대에는 내포지방의 입구로 해상과 육로로 연결되는 중요한 포구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4대 박해(신유, 기해, 병오, 병인)를 통해 만여명의 순교자를 낳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내포지방에서 나왔다. 서산 해미읍성 순교성지도 그 중 하나로 유명하다.

병인박해 때 아산지역 출신 순교자는 모두 32명이었는데 각각은 서울, 수원, 공주 등으로 끌려가 고문, 옥사, 참수형 등으로 순교한다. 현재 이분들을 위한 납골식 순교자 현향탑이 조성되어 있고 현향탑 앞에는 순례객들이 미사를 봉헌 할 수 있도록 야외 재대가 꾸며져 있다.



❖ 성지 박물관

공세리 성지·성당 박물관은 도지정 문화재 144호인 구사제관을 개보수하여 개방한 것으로 대전교구 최초의 감실(龕室)을 비롯한 1,500여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의 태동에서부터 내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의 교우촌 생활모습과 신유-병인박해 때의 순교자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성직자들의 활동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세리 성당 초대 신부인 에밀 드비즈 신부의 유품과 유물, 성 앙베르 주교,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팡 신부의 유해와 성녀 루이스 드 마릴락의 유해와 32위 순교자 유해를 모시고 있다.

❖ 피정의 집

1만 여평의 넓고 아름다운 공세리 성당의 피정의 집은 100명이 숙박할 수 있다. 싱그러운 자연과 함께 산책, 아늑하고 한적한 성체 조배실의 기도, 야외무대(드비즈 광장)이 준비되어 음악회, 발표회, 야외 강의를 할 수 있다. 미리 신청만 하면 단체피정, 주일학교 캠프, 자전거 성지순례 등을 할 수 있다.

공세리 성지·성당은 교인들을 위한 성당이 아니라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와 뿌리를 찾아 볼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신앙인들에게는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고, 비신자들에게는 휴식과 천주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체험 장소이다. 여러분도 천주교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

• 자료제공 : 공세리 성당 바오로 수녀님



내 아이 두뇌훈련 트레이너가 되자

자기주도학습코칭 강사 김 경 숙

얼마 전 신문을 통해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모습을 읽은 적이 있다. 최신 교육정보나 새로 바뀐 입시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기관에 부모들이 이쪽, 저쪽으로 휩쓸리어 다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이들은 최신 트렌드를 쫓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이러한 부모들은 어느 것 하나도 확신하거나 마음을 편하게 두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근본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믿음과 자녀양육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자녀의 의사를 바탕으로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의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지지해줄 때 우리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꿈을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상호신뢰를 쌓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먼저, 인간의 놀라운 두뇌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인간의 뇌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것에 집중을 하고 소리를 잘 기억하며 이야기를 좋아한다. 또한 뇌는 기분 좋은 것을 저장 한다. 이러한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뇌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뇌의 기능을 살펴보면 우뇌는 감성적·직관적·비언어적·시공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좌뇌는 논리적·이성적·언어적·수리적·분석적 기능을, 전두엽은 창의적 기능, 종합적 사고의 기능을 맡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불리는 두정엽은 입체공간적인 기능을 한다. 한편 측두엽은 인지기능과 기억 기능을 조절한다.

이와 같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잘 이해한 후, 0세부터 17세까지 연령별로 나타나는 두뇌 발달 과정을 통해 우리아이 두뇌발달도 체크해 본다. 또한 남녀 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두뇌 능력의 효과적인 맞춤 교육법을 찾아보자. 더불어 뇌를 단련하는 10가지 기술을 살펴보고 실천해 보자.

다음으로 내 아이가 가진 타고난 재능을 파악해야 한다.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인간은 8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은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발레리나 박수진씨는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높았다고 한다. 고된 훈련을 견디며 스스로 목표를 추구하는데 자기이해지능이 도움이 되었다. 가수 윤아를 보면 음악지능,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심장전문의 송명근 박사는 논리수학지능, 자연친화지능, 자기이해 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이 세 명을 살펴보면 제일 잘하는 지능에서 직업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직업을 갖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이해지능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장 높은 세 가지 지능이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성공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8가지 (언어지능, 수리논리지능, 음악지능, 공간지각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 지능 중에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지능인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꿈과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 두뇌를 잘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두뇌훈련 트레이너가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아이가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자녀의 특기와 흥미, 가치관, 성격, 꿈을 바로 알고 자녀와 많은 대화를 통해 친구가 되어 보고 올바른 두뇌 훈련으로 공부하는 스스로 하고 싶을 때 즐겁게 하도록 유도한다. 잠은 충분히 재우며, 아이에게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 명랑한 아이가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번 11월 10일부터 서산문화원에서 시작하는 ‘내 아이 두뇌 훈련 트레이너가 되자’ 라는 강의를 통해 부모님들의 아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커지고 두뇌훈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서산의 템플스테이원플러스투어를 다녀오고..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만개한 가을 길을 따라 서산 부석사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경이었다. 처음으로 서산의 산사체험 길에 오른 나의 마음은 가을 소풍가는 어린아이처럼 기대속에 가득 찼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황금물결처럼 마음속엔 설렘이 일렁이고 있었다.

고즈넉한 산사의 부석사는 채가시지 않은 아침 안개에 젖어 멀리 내려다보이는 서해를 조용히 응시하며 품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안갯속에 산신각의 주변은 흡사 산신령이라도 나타날 듯 신비로웠고,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설레던 마음은 차분해졌다.

어느 산사에 가든 여러 종류의 종을 보게 되는데 이곳 부석사의 금시조종은 독특했다. 옆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사신상의 하나인 백호가 살아 있는 듯 기백 있는 모습으로 서있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름도 머물다 간다는 운거루... 그 운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한참이나 운거루에 내 마음이 머물렀다.

산사를 찾은 일행들에게 잠시 다도를 통해 심신을 달래준 '다도' ... 부석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짧은 시간 다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익혀갈 순 없어도 차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을 나누고 느낄 수 있었다. 한 모금씩 마셔보았던 녹차는 보약일 수 밖에 없다.

일행 중에 한분이 스님에게 물으셨다.

“해탈”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크게는 삶의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참선을 통해 그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고 남김없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비워둔 그 마음을 해탈이라 하셨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욕심 없는 넉넉함을 비우는 마음속에 채워가는 짧은 체험의 시간에 감사했다.

부석사에서 점심을 먹고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을 보게 되었다. 얼굴 가득 자애롭고 온화한 미소를 담은 마애여래상의 얼굴이 빛의 바뀌는 방향에 따라 그 웃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전해져 왔다. 온화한 미소를 띤 마애여래삼존상을 마음에 담고 마지막 탐방지인 해미읍성에 도착했다. 해미읍성... 조선시대 전형적인 모습을 면적 20만㎡의 규모 안에 조용하고 한가롭게 담겨 있었다. 가을 하늘 위로는 여러 모습의 연들이 날려져 있었고, 3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호야나무(회화나무)가 천주교 박해의 아픈 역사를 온몸에 간직한 채 아직도 고뇌에 차 있는 듯 쓸쓸해 보였다.

가을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음엔 어느덧 다 익은 벼이삭의 황금 물결처럼 설렘과 기대로 찼던 마음이 풍요로운 만족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서산 템플스테이 탐방 길에 오를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서산시 문화관광과와 서산문화원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쓴이 소개

정 명 혜

서울 동작문화원 회원





가을차

옛날 공부하는 선비들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국화꽃잎을 말려두었다가 독서시에 벗으로서 그 잎을 다려 마셨다고 한다. 아름다운 계절, 차와 함께 여유도 느껴보고 건강도 챙겨보자.

국화차 [菊花茶]

말린 감국(甘菊)의 꽃잎으로 만든 한국의 차.

말린 국화꽃과 꿀(끓인 꿀)을 고루 버무려 오지그릇에 넣어 3~4주일 밀봉해두었다가 끓는 물에 꿀에 버무린 꽃잎을 타서 마신다. 분량은 열탕 1잔에 꽃잎 2~3스푼이 적당하며, 마실 때 꽃잎과 찌꺼기를 걸러내고 꿀만 마시도록 한다. 예로부터 불로장수한다고 전해 오며, 특히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한다. 신경통, 두통, 기침에 효과가 있다.

오과차 [五果茶]

다섯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한방차

물(20컵)에 대추(20개), 호두(10개), 밤(20개), 은행(30알), 생강(1톨)을 넣고 센불에 20분 쪄 끓인뒤 다시 약한 불로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마신다. 즐겨 마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감기나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어린이도 잘 마셔 가족 약차로 좋다.

황차 [黃茶]

녹차에서 변형된 차로 녹차잎을 반발효시킨 차.

차잎과 차물색, 우린잎이 모두 황색이라 삼황(三黃)이라고도 한다. 황차는 차잎을 녹차와 같이 열을 가해서 산화 효소를 파괴한 뒤 유념 후에 “민황”과정을 거친 차다. 민황이란 나무 합판이나 비닐에 넣고 쌓아두어 후발효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뜨거운 증기와 열 때문에 녹색의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황색을 띠게 되는데, 자연적인 산화에 의해 폴리페놀 성분이 감소하고 당류와 아미노산도 변화하여 독특한 향미를 내게 된다. 녹차에 비해 부드럽고 순한 맛에 단맛이 더하고 고유의 풍미가 좋다.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서산 덕지내 · 돌개미 두레놀이 경연”

2011년 10월 8일(토)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거북선 공원에서 펼쳐진 「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충청남도를 대표하여 경연대회에 출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속 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1958년의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로 첫 회를 시작한 행사이다.

올해는 전남 여수에서 개막하여 전국 지자체와 이북 5도에서 출전한 20개의 팀으로 경연이 이루어졌다. 서산문화원에서는 서산 덕지천동·장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대표적 민속놀이 “서산 덕지내 · 돌개미 두레놀이”로 출전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경연의 첫 번째 순서로 800여명의 관람객 앞에서 선을 보였다.

서산 덕지내 · 돌개미 두레놀이는 19세기 초에 시작되어, 실제로 장동과 덕지천동에서 1950년까지 행해진 전통민속놀이이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공주, 부여 시연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충청남도를 대표해 출전하여 전국의 우수한 팀들과 경연을 치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2010년 세계대백제전에 이어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서산의 지역 민속놀이인 두레놀이가 우수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대회에 참여하여 전통 민속놀이를 우리 지역을 알리고 전통이 후손들에게 잊히지 않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임동창 風流 - 오청취당의 꿈

308세 여인과 사랑에 빠진 임동창,
프리어 일을 내다!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지난 10월 10일 저녁 7시 서산 옥녀봉 단군전 프락에서 「오청취당의 꿈」 공연을 개최하였다. 단군전에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오청취당과 임동창의 만남에 큰 관심을 가졌다.

오청취당(1704-1732)은 해주 오씨 오기태의 딸로 남편은 한다리 김씨 김한량(1700-1752)이다. 문집으로 『청취당집(淸翠堂集)』이 있으나 역대 시화서나 문학사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여성 시인이다. 청취당은 당시 스물 둘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혼인하여 음암면 유계리에 정착하였으나 두 자식을 낳자마자 잃었고 병고에 시달리다 스물아홉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그러한 자신의 짧은 삶 속에서 술과 시는 맺힌 근심을 풀고, 고독과 우울한 심사를 털어낼 수 있는 휴식처요 이상향이였다. 청취당은 자신의 삶에 대한 단상을 182수의 한시에 담아 내었다. 『청취당집』은 그녀의 시를 문희순 교수(배재대)가 번역하여 서산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으로 조선 후기 한 여성 지식인의 일상과 고뇌, 문학적 성과를 추적 할 수 있는 보고이다.

풍류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임동창씨는 평소 전통시대를 살다 간 이 땅의 여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었다. 우연히 『청취당집』을 접하고 청취당의 작품에 매료된 임동창씨는 오청취당의 시를 한달음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오청취당의 꿈」은 그동안 문학사에 알려지지 않았던 서산의 여성시인 오청취당을 기리는 음악회이다. 문희순 교수가 번역한 오청취당의 시 182수 중 〈춘사〉, 〈달밤〉, 〈달을 사랑함〉, 〈객과 더불어 노는 아우에게〉 4수를 피아니스트 임동창씨가 작곡하여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다.

청취당에게 바치는 헌다, 청취당의 낮을 기리는 현대무용수들의 살풀이, 오청취당의 삶에 대한 문희순 박사와 임동창의 대담, 청취당의 청아한 시상에 꼭 맞는 임동창의 단아하고 품격 있는 피아노 연주, 젊은 소리

명창 송도영의 맑고 신비로운 소리로 진행되었다. 특히 임동창의 피아노 선율, 청취당의 시, 송도영의 아름다운 정가소리가 함께한 공연은 참석한 관람객 모두 오청취당의 삶과 문학에 빠져들었던 품격 있고 감동적인 무대였다.

이번 공연은 청취당을 위한 진정한 추모의식이면서 청취당의 드높은 기개와 예술혼을 세상에 알리는 멋진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오청취당이라는 역사인물을 알리고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발굴하는 기회로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달 밤

달이 높아지니 꽃 그림자 움직이고
바람이 흔들려 버들 그늘 옮겨가네.
맑은 경치 누굴 위해 이다지도 좋은가?
응당 시 한수 권하는 일일러라.

月夜

月高花影轉
風動柳陰移
清景爲誰好
應知勸作詩

문

화

원

소

식

■ 문화가족 한마당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의 화합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문화가족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만남과 문화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친목의 시간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1. 11. 11(금) 10시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 대 상 :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
- 내 용 : 감사패 전달,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마패예술단 초청공연 등

■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원 미달과목에 한해 추가모집 중입니다.

- 모집기간 : 2011. 10. 27~11. 11
- 강의기간 : 2011. 11. 7~12. 27
- 강의과목 : 가베지도사, NIE지도사, 클레이아트 지도사, 천연화장품 만들기, 자녀 두뇌훈련법 등
- 추가모집과목 : NIE 지도사, 클레이아트지도사, 미술과 그림읽기 아이와 함께 생태수업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전화문의: 669-5050)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수강생 발표회

3개월간의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을 마치고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1. 11. 30(수) 10시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발표), 문예관람실(전시)
- 발 표 : 플룻, 바이올린, 클라리넷, 요가, 전통무용 등
- 전 시 : 수채화, 도예, 한국화, POP예쁜글씨 등

시 | 정 | 소 | 식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

구분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매개체 및 감염원	털진드기와 진드기 유충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흙	설치류(등줄쥐, 집쥐)
잠복기	8~11일	5~7일	7~21일
임상증상	가피형성, 고열, 오한, 심한 두통, 발진, 구토, 복통 등	가벼운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병(Weill's disease)까지 다양함	발열기, 저혈압기, 핏노기, 이노기, 회복기의 5단계
전파경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토양에 노출 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공기 중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
예방법	○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는다.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는다.	○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꼭 착용한다. ○ 태풍, 홍수 뒤 버 세우기 작업 시에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한다.	○ 들쥐의 배설물이 있는 풀숲(오염지역)에서 휴식이나 야영을 하지 않는다. ○ 주변에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
	○ 유행성 지역의 관목 숲이나 유행지역에 가는 것을 피하고 ○ 들쥐 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하고 ○ 밭에서 일할 때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고 ○ 휴식 및 새참 먹을 땀 뚝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고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작업복, 속옷, 양말을 세탁하고, 반드시 목욕을 한다.		

※ 논과 밭 추수 작업, 도토리·밤 줍기 등 야외 활동 후에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 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자국이 있으면 지체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김계환 (서산시 해미면) 50,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정계훈 (서산시 팔봉면) 50,000원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 이형순 (서산시 동문동) 50,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 류근성 (서산시 석남동) 3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 서두석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박관희 (서산시 부석면) 2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박성섭 (서산시 고북면) 20,000원 |
| • 이인교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인지면) 10,000원 | • 장석동 (서산시 고북면) 20,000원 |
| • 김낙중 (서산시 음암면) 5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이원엽 (서산시 고북면) 20,000원 |
| • 안창수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 이순희 (서산시 해미면) 5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박수환(이사) (서산시 동문동) 240,000원 | • 한동명(감사) (서산시 읍내동) 240,000원 |
| • 김시환(이사) (서산시 인지면) 240,000원 | • 김광조 (서산시 고북면) 100,000원 |
| • 정수도(이사) (서산시 읍내동) 240,000원 | • 이홍진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 최차열(이사) (서산시 수석동) 240,000원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20,000원 |
| • 이민재(이사) (서산시 부석면) 240,000원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http://www.seosan.go.kr>

서해안의 중심도시 서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서산**으로 오세요!

서산은 바다를 접한 온화한 기후로 자연재해가 적은 천혜의 **복받은 고장**입니다. 만과 반도, 낮은 구릉지대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청정농수산물에 풍부하며 **세계의 철새가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가 살기 좋은 곳이 곧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서산은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종교와 철학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의 최초 전래지로 국보 84호인 **마애여래삼존상**이 있으며,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인 **해미읍성**이 있습니다. 조선조 최고 산수화가인 **안견**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된 문화수준이 높은 고장 서산은 예절을 중시하는 **양반의 고장**이기도 하며 **넉넉한 인심**도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과 더불어 대산항 개항, 자동차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져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산으로 오세요!



해미읍성



벌천포해수욕장



보원사지



마애여래삼존상



철새도래지



용현계곡





ebook.
cult21.or.kr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겨진** | 비매품(통권 제337호)

발행일 2011년 11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